

Q1 휴업과 휴직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사업장을 닫아야 하는 건가요?

- A1) 아닙니다. ① 휴업 시에는 **전체 근로시간을 20% 초과해서 줄이면 되고**
 ② 휴직 시에는 **1개월 이상 실시하면 됩니다.**

Q2 고용유지조치계획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A2) 휴업·휴직을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단,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았음을 입증한 경우엔 휴업·휴직 실시후 3일까지,
 특별재난지역(대구·경산·청도·봉화) 소재 사업장의 경우 20일까지 사후신청 가능 (소급적용)

▶ 당초의 계획대로 휴업·휴직 실시가 어렵게 된 경우

⇒ "고용유지조치계획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변경계획 실시 하루 전까지)

Q3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에 신규채용이 가능한가요?

A3)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신규채용 허용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예외적으로 신규채용이 가능한 사유

☑ **(현행)**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개신) 업무특수성 등 기존인력으로 대체치가 불가능하여 신규채용한 경우**

- ▶ (업무 특수성) 필수기능인력 필요분야에 자발적 퇴사자 발생으로 기존인력 대체치가 불가능한 경우
- ▶ (법령기준 충족) 법령에서 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퇴사자를 대체할 관련 인력인 기술자를 채용한 경우
- ▶ (사업 확장) 신규 사업 때문에 신규채용이 필요하고, 기존인력으로 대체치가 불가능 경우
- ▶ (기존인력 대체치) 기존에 일용직으로 계속 근무하던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외형상 신규채용에 해당하는 경우
- ▶ (직무의 차이) 자진퇴사자의 직무가 상이하여 기존인력으로 대체치가 불가능하여 신규채용한 경우
- ▶ (채용시기 변경) 사업주가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외국인근로자(E-9)가 당초 계획 보다 앞당겨 입국한 경우
- ▶ (파견근로자 직접 고용)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다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 고용한 경우
- ▶ (지역적 거리) 퇴사자의 직무 내용이 동일해도 장소적으로 거리가 떨어져 있어 통근이 곤란하여 기존인력으로 대체 가능성이 없어 대체치가 불가능한 경우

☑ **적용기간** : '20. 4. 27(월) ~ 9. 30(수)까지 실시한 고용유지조치

☑ **신청방법** : 지원금 신청시, "예외적 신규채용 사업주 확인서" 함께 제출

※ 단, 사업주 단위로 10% 범위를 넘어갈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정 여부 결정

중소기업의 더 밝은 미래를
대한민국의 행복한 미래

이것만은 꼭 알아야한다

고용유지지원금

2020. 7

사업개요

-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직원수)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감원하지 않고 휴업·휴직하는 경우 인건비 지원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란?

- ☑ 다음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기준달: 고용유지조치 시작한 달)

1. 재고량이 직전연도의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50% 이상 증가한 사업주
2. 매출액·생산량이 ① 직전연도의 같은 달의 매출액·생산량 또는 ②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생산량 또는 ③ 직전연도 월평균 매출액·생산량 대비 15% 이상 감소한 경우
3.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나, 직전 2분기의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4. 사업의 일부 부서의 폐지·감축 또는 사업 규모를 축소할 경우 (일부 생산라인 폐지 등)
5. 자동화 등 인원 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의 설치, 작업형태 또는 생산방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 등

- ☑ 단,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음을 입증할 경우,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도록 지원요건 완화

- ▶ 인정예시: 예약취소증, 휴업권고서, 원자재 수급불가에 대한 증명, 확진자의 방문 등
- ▶ 인정기간: '20. 1. 29 ~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시까지

지원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1인 이상 기업(모든 업종)

지원조건

- 휴업수당 신청요건: 전체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휴업 실시
- 휴직수당 신청요건: 1개월 이상 휴직 실시

지원내용

- 지원수준: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업·휴직수당의 일부
 - 우선지원대상기업: 2~3월 임금에 대해서는 75%, 4~9월 임금에 대해서는 90%
 - 대기업: 2~9월 임금에 대해서는 67%
- * 올해 10월부터 다시 기존 지원수준 (우선지원대상기업 67%, 대기업 50%)

지원절차

신청방법

지원금액 예시

우선지원
대상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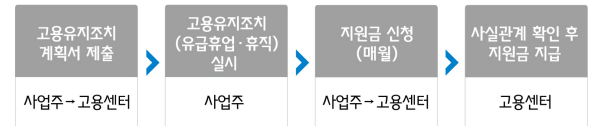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1. 산업별로 상시 근로자 수가 다음에 해당되는 기업

- ▶ 500명 이하: 제조업
- ▶ 3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업, 사회복지서비스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보건업
- ▶ 200명 이하: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금융보험업, 예술스포츠업
- ▶ 1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따른 기업은 1번의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포함

- 지원한도: 상한액 1일 6만6천원(월198만원), 최장 연180일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gi.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 ① 고용보험 홈페이지 -> ② 상담의 "기업서비스" -> ③ 고용안정장려금 -> ④ "고용유지지원금"에서 신청가능

- * 계획 신고후 계획 변경시: 변경 1일전에 온라인(www.egi.go.kr)으로 변경신고

사 례	구 분	2~3월(75% 지원)	4~9월(90% 지원)
월급 200만원 근로자	휴업수당(월급×70%)	140만원	140만원
	고용유지지원금	105만원	126만원
월급 378만원 근로자	휴업수당(월급×70%)	265만원	265만원
	고용유지지원금	198만원(상한액)	198만원(상한액)

※ 상한액(월198만원)에 의해, 월급여 315만원 이상 근로자는 모두 지원금 198만원으로 동일하며, 월급여 378만원 이상 근로자는 지원수준 확대에 따른 지원금 변동 없음